

은석초등학교는 7월 20일 봉은사 일원에서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판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학생과 학부모들.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 기념촬영 모습.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


법회에는 은석초 오케스트라단의 공연이 열렸다.

도심 속 천년고찰 찾은 '천진불들'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 7월 20일 봉은사 합동 순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여름방학 1일차를 맞은 은석초등학교(교장 양형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60여 명이 서울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 모였다.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 날인 7월 20일, 이들이 봉은사에 모인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으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가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은석초등학교는 매 학기마다 1회씩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를 봉행해왔고, 여름방학을 맞아서는 불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조금은 수그러들었지만, 여름 수련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 이번엔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합동 사찰 순례법회'로 대체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은석초등학교의 외부 신행프로그램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직접 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다. 이날 원명 스님은 법문에서 5가지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이 강조한 5가지 은혜는 △국가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친구에 대한 은혜 △자연에 대한 은혜다.

원명 스님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행정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가 있어서다"며 "언젠가는 우리는 국방 등 의무를 통해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양쪽 어깨에 모시고 수미산을 수천 번 오르내려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상기시키며 "모든 선법(善法)은 부모님 은혜를 보은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효행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승과 친구는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승에게는 존경을 보이고, 친구는 되도록 바른 친구를 사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기후 위기 상황을 예로 들며 환경보호 실천으로 자연에 대한 은혜를 갚을 것을 강조했다.

원명 스님은 "유럽의 한 학자가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조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말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며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자원은 자연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자연이 전해주는 은혜를 쉽게 잊고 산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5가지 은혜를 항상 명심하고 보은을 실천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인재로 자라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원명 스님의 법문 이후 이어진 석가모니불 정근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시금을 정성스럽게 불전함에 넣었다. 은석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학생 단원들은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과 히사이시 조의 '여름(Summer)'을 연주했고, 앵콜곡으로는 편곡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선보였다.



'어린이 오계' 사경을 완성한 학생들.

3년 만에 사찰 순례법회 재가동
학생 · 학부모 등 160여 명 참여
주지 원명 스님 직접 법문 설해
국가 · 부모 등 5가지 은혜 강조
봉은사 곳곳 참배…불교 체험도


양형진 교장이 사경 지도를 하고 있다.

법회 이후에는 조별로 봉은사 전각 순례를 진행했으며, '어린이 오계' 사경 · 108염주 꿰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이뤄진 야외 신행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

최선미 은석초 연화어머니회장(50)은 "아이들과의 야외 신행활동은 오랜만이여서 반갑다"며 "지도법사 혜등 스님께서 학생들을 잘 지도해주셔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법회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도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수연 연화어머니회 부회장도 "첫째가 은석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둘째도 현재 재학 중이다. 여름수련회인 '연화캠프'를 못해 아이가 조금 아쉬워했지만, '사찰 순례 법회'에 참여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고 밝혔다.

박성현 연화어린이회장(6학년)은 "사찰에 직접 와서 법회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5가지 은혜에 보답하라는 주지스님의 법문이 좋았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신났다"고 말했다.

친구 김민 군(6학년)도 "사찰에 처음 와서 긴장됐지만 지금은 신기하고 즐겁다. 사찰 전각 순례도 재미있다. 마치 박물관에 온 기분"이라고 즐거워했다.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은석 동문'인 가족도 눈길을 끌었다. 은석초등학교를 졸업한 안찬욱(45) 씨는 "은석초등학교에 다니며 연화어린이회원이 됐고, 수계를 받아 불자가 됐다. 제 아이가 같은 학교에 입학해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뿌듯하다"면서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불교를 신앙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안지후(1학년) 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빠랑 함께 사찰에 와서 재미있었다. 주지스님 법문을 잘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했다.

교직원들도 재개된 학외 불교 신행활동을 반겼다.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 지도법사 혜등 스님은 "3년 만에 사찰 순례 법회를 봉행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 도심에 이처럼 여법한 도심 전통 사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정근할 때 정성스럽게 보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인상 깊었고, 공양간에 '그릇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통해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이 같은 법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형진 은석초등학교 교장은 "은석초등학교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불교종립초등학교로 재학생 중 절반 가량이 연화어린이회에 가입해 신행생활을 하고 있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수계를 받고 졸업할 만큼 새싹불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찰 순례 법회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재개해 기쁘다. 오늘의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더 바르게 살고 복을 많이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사과문

존경하는 한국불교태고종 법륜사 주지 지홍 스님 및 태고종도 여러분!

최근에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에서 매년 음력 9월 9일(중양절)에 설행하는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광고를 〈현대불교신문〉에 게재(2022년 7월 20일자)하면서 청련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소납의 불찰로 청련사 대중이자 한국불교태고종 5대 본사 중 하나인 법륜사 주지 지홍 스님을 광고문안 속에 빠트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소납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청련사 종무에 신중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련사를 사랑해주시는 종도 및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륜사 주지 지홍 스님과 법륜사 대중 일동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7.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 주지 상진 합장